

향군, 국방부와 위례사업 적극 추진... “한 팀 되어 노력할 것”

서욱 장관, “재임기간 내 성사가 소망”... 쟁점사안 재평가, 조기 추진 합의

김진호 회장을 비롯하여 이상훈 전 회장, 용영일 전 사무총장 등 역대 향군 회장단이 5월18일 국방부를 방문하여 서욱 국방장관을 만나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 안보상황 및 향군 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향군회장단은 특히 향군의 숙원사업인 위례사업 추진현황을 공동 점검하고 향후 위례 향군타운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한 팀이 되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김진호 회장은 그간의 국방부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며 서욱 장관에게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례 향군타운 건립과 관련 “본인이 장

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위례사업이 잘 결정되어 성사되는 것이 소망이라며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또 서욱 국방부 장관과 김진호 회장은 이날 동 사업추진을 둘러싸고 향군과 국방부 간 견해 차이의 원인이었던 법적 쟁점 사안들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합의했다.

김진호 회장은 “오늘 국방장관의 언급은 향군이 국내 최대 안보단체로서 전국 조직을 활용하여 한미동맹 강화 등 적극적인 안보 활동을 펼치고 정부의 안보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결과라며 1천만 향군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역대 향군회장단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위례 향군타운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김진호 회장, 이상훈 전 회장, 서욱 국방부 장관, 용영일 전 사무총장.

성명서

향군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5월21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와 백신협력 등 양국의 현안문제는 물론 국방 경제 분야까지 171분간 진지하게 논의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확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재확인하였다. 문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만나는 외국정상으로서 양국 정상 간 성의 있는 대화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미사일 지침 해제, 코로나 백신의 직접지원,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공동협력,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 등 중요하고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데 대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1천만 회원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겠다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격화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가 지향해나가야 할 가치를 분명히 한 것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그 동안 보인 모호한 입장에서 벗어나 쿼드의 중요성과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한 것은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냉엄하게 인식하고 한미동맹 중심으로 이를 헤쳐 나가겠다는 결단이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둘째, 우리의 당면 위협인 북핵문제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였다.

한미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면서 그 동안 추진해온 4.27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미북 간의 합의내용을 토대로 해결 노력을 이어가기로 한 것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확고하게 결심하고 한미 양국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환영하고 향후 그의 역할을 기대한다.

셋째, 한미 미사일지침을 완전 해제한 것은 우리의 안보위상을 크게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이후 조속한 방위비 협상 타결로 한미동맹을 정상과도로 올려놓았고, 이번에 우리의 미사일최대사거리를 800Km로 제한했던 한미 미사일지침을 해제한 것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것이며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역사적인 결실로 높이 평가한다. 이는 향후 한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기여 할뿐만 아니라 안보위상이 크게 높아져 외교적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안보정책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넷째, 동맹의 정신으로 미국이 코로나 백신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동맹은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이 되어야한다. 이번에 우리의 굳건한 동맹국인 미

국이 우리나라와 포괄적 안보차원에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하고 양국의 백신 기업 간 협약을 체결하여 글로벌 백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기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우선 우리 군에 55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약속한 것은 한미동맹을 안보를 넘어 가치, 경제, 첨단기술까지 확대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다섯째, 미 한국전참전용사 ‘추모의 벽’ 착공은 혈맹인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미동맹은 한국전에서 함께 피 흘려 싸운 희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번 방미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전참전용사 랫프 퍼켓 주니어 예비역 대령에 대한 명예훈장 수여식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고, 이어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에서 열린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하여 감동적인 연설을 통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므로써 혈맹인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추모의 벽’을 건립하여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달려와 대한민국을 지키다 전사한 미군전사자와 배속되어 함께 싸우다 전사한 카투사 등 미국역사상 최초로 외국군의 이름을 새겨 넣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인 향군은 3년 전부터 ‘추모의 벽’ 건립에 앞장서서 전국적인 성금모금운동을 전개하여 모아진 성금을 추모의 벽 재단에 전달한 바 있다. 성금모금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에 정부가 나서 ‘추모의 벽’ 건립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이번에 착공식을 갖게 된 것을 1천만 향군회원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며 환영한다.

우리 1천만 향군 회원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안보 일변도였던 기존의 동맹체제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확장된 동맹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달의 안보칼럼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의 진실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체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 검토결과를 마무리 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동맹외교를 통한 강한 역지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비대칭전력인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변함없이 전념하고 있어 한반도 안보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1991년 12월 남북한 간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하고 핵을 제거하기 위한 최초의 남북한 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다. 이러한 남북한 간의 비핵화 합의의 근거를 북한은 모두 일방적으로 무너뜨렸다.

지금 김정은 정권은 체제 안정에 주력함은 물론 유일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변함없이 한미 동맹 갈등을 부추기고 핵미사일로 군사적인 위협을 지속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 신뢰구축에 대해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 능력

지난 4월에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발표한 공동 보고서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67~116여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2027년에는 151~242여개의 핵무기를 확보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의 핵무기를 필두로 한 대량살상무기는 근본적으로 남북한 간 현안문제이며 세계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의 비대칭전력에서 특히 핵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한 간 군사균형을 위해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한국은 특단의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앞으로 계속해서 핵무기의 수와 성능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며, 핵의 제2격 능력인 SLBM을 완성하여 위협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분석되고 있다.

한국의 우발계획

이것은 우리에게 우발계획(선제공격)을 준비하는 것을 종용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래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방안 중 하나로 우리 정부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를 전략적 대안으로 마련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킬 체인은 북한의 임박한 핵미사일 공격능력을 분별해 내고 공격대상이 되는 모든 장소를 적시에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게 분석되고 있다.



방 호 엽

통일연구원 프로젝트 위원
향균 안보교수

여기에 킬 체인 운용을 위한 한국의 선제적 자위권에 대한 결심은 한미동맹 관계에서의 정보력 공유에 대한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핵무기에 대응한 재래식전력의 신속한 대응은 오히려 선제적 공격에 뒤따르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재래식전력으로 핵미사일에 대항하는 확장억제의 불확실성은 별도의 핵 억지력 마련이 불가피한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 등 강국 사이에 전쟁이 불가능한 이유는 핵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포의 균형이 존재할 뿐 아니라 핵무기를 고려하여 전쟁을 자제하게 된다. 이러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억제는 핵무기로 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래서 실존적 억제(existential deterrence)라는 개념도 생겼다. 실존적 억제란 한 국가가 어떤 핵전략을 가졌는가에 고려 없이 핵무기의 고유적인 성격 때문에 억제력이 생긴다는 뜻이다. 그래서 북한 같은 국가에는 이러한 실존적 억제가 필수적이다.

한반도 비핵화 방향

북한 김정은 정권은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핵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핵 보유 및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핵보유국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2027년에 최대 242개의 핵무기와 수십 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필요시 서해 5도를 점령한 뒤 핵으로 위협하거나 서울을 핵으로 위협하는 제한된 핵 공격을 감행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약화시키는 등의 비대칭전략을 강구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의 비대칭전력은 한반도에 대량보복, 상호자멸 등과 같은 상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래식전력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그래서 북한의 핵전략 의도를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 등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지난 61년에 미국원자력위원회와 체결한 특수핵물질 대여협정과 같은 핵무기 대여 등의 지혜로운 핵무기 배치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체제유지의 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김진호 회장,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만나 현안 논의



김진호 회장이 5월14일 서울지방 보훈지청에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만나 향군 현안 및 회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안보전망대

한미, 한반도 비핵화위해 긴밀 협조
미사일 지침 해제

문재인 대통령은 5월21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은 소통하며 대화·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이다.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며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공동기자회견 중 대북특별대표에 성기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

청와대는 공동기자회견 중 고위급 대북특별대표를 발표한 것은 대북 정책에 대해 양국 간 논의가 깊게 이뤄진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목표에 대해 어떤 환상도 없으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역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이로써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미 국방부 한미훈련은 방어적 훈련
연합전력 준비태세 유지 필요

미국 국방부가 5월18일(현지시간) 한국 내 일각에서 올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한미연합전력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특히 한미훈련은 "오늘밤에라도 싸울 수 있도록 한미동맹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훈련은 비도발적이지 방어적 성격을 띤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미 국방부는 "훈련 범위·규모·시기는 양국 간에 여러 요소를 염두에 두고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북한을 적대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 한미훈련 중단"이라며 미 정부를 향해 8월 훈련 유예를 요구했다. 북한 또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미 의회, 종전선언과 평화선언 촉구
하원 외교위 브래드 셔먼의원 법안 발의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민주당)의원이 5월20일(현지시간)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의 로 칸나, 그레이스 명,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도 동참했다.

이 법안은 "국무장관에게 남북미 사이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며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이어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국무장관에게 평양과 워싱턴DC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북한과 협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 의회에서 종전선언 추진 결의안 논의 등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법안으로 정리돼 제출된 것은 처음이다.

향군, 한미동맹의 상징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 '산파'역

전국적으로 건립성금 모금, 10개월 만에 6억3천만원 모아 ... 정부 지원 이끌어

미국 워싱턴DC 내셔널 몰에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안에 건립되는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착공식이 5월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그리고 미 동부지회 김인철 회장 등 10여명의 향군 관계자, 참전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다.

이번 착공식은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열려 "실체적으로 한미동맹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3만6천 여 명의 미군과 8천 여 명의 카투사 참전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 '추모의 벽'이 착공하기까지에는 참전용사들의 위훈을 기리고 위상을 정립하고자 했던 향군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추모의 벽' 건립 추진 모금 운동 한미동맹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제시

2018년 8월 김진호 회장은 8월 말부터 약 2주간 미국 재향군인회 100차 총회 축하 연설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방미기간 중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참전비와 베트남전참전비에 헌화하면서 베트남참전비와는 달리 한국전참전비에는 전사자 명단이 없는 것을 보고 아쉬워하던 중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에서 '추모의 벽'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김진호 회장이 귀국한 후 향군은 9월10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10개월 간 동아일보, 서울신문, 국방일보와 함께 본격적으로 성금모금 운동을 전개했다.

처음에는 3개월 동안 향군 회원들을 대상으로 1억 원을 목표로 정회원 1인1달러 모으기 캠페인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그 열기가 뜨거웠고 성금 모금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해서 모금을 했다.

그 결과 89개 단체, 22개 기업, 2만 8,577명이 참여하여 목표의 6배인 6억3천 여 만원을 모았다.

정부부처에서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상돈 국회의원 등이 성금을 보내 주었으며 군에서도 합참의장을 비롯해 각 군의 많은 간부들도 온정을 보내 왔다. 뿐만 아니라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 대사도 계통대 간부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전액을 기탁했다.

또 향군 홍보대사인 뽀빠이 이상용씨, 신수지씨(전 체조선수)도 참여했으며 인피니개발 산업 박인수 회장께서도 최고 금액인 3천만 원을 직접 전달해 주었으며 텍사스 미군예비역단체인 해외참전용사회(VWF)에서도 이 소식을 전해 듣고 1만달러를 기탁해 왔다.

성금은 2019년 7월27일 김진호 회장이 워싱턴을 방문하여 추모의벽 재단에 직접 전달했다. 김진호 회장은 이날 미국정부가 주관하는 7.27정전협정기념행사에 참가한 데 이어 저녁시간에 미 한국전참전용사를 초청, 보은행사를 열고 존 킬렐리 한국전참전용사기념비재단 이사장에게 모금액 6억3천 만 원을 전달했다. 향군이 대대적으로 추진한 추모의 벽 모금은 미국참전용사들에 대한 우리국민들의 고마움을 미국 조야와 국

민들에게 전달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관계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었다.

이같은 향군의 노력에 문재인 대통령도 화답했다. 문대통령은 2020년 6월6일 제64주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미 참전용사 '추모의 벽'을 2022까지 건립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식화했다.

이후 정부는 향군을 비롯한 민간단체 모금액 62만 5천 달러를 제외한 2천2백만 달러를 2021년 3월 보냈고 예산을 마련한 '추모의 벽' 재단은 3월15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데 이어 문재인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중인 5월22일 착공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문대통령 건립지원 공식화 이끌어 내 향군, 공공외교 역할 충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부가 지원을 결심하게 되는 데는 향군의 공이 대단히 컸다. 성금모금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했으며 추모의 벽 재단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소통, 공공외교 결과를 청와대와 안보실에 보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가교 역할을 충실히 했다.

'추모의 벽'은 미국 최초로 외국 군인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로 워싱턴 DC 중심에 한미동맹의 상징물로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전용사를 추모하고 기억하려 노력했던 대한민국 향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노력을 기억할 것이다.

향군역사 바로알기 ㉓

6·25행사, 향군 주관으로 2009년까지 개최

민족의 최대 비극인 6·25전쟁이 끝나고 정부와 각 단체에서는 매년 6월25일이 되면 "그 날을 잊지 말자"며 반공의식과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985년까지만 하더라도 6·25행사는 재향군인회와 자유총연맹(전 한국반공연맹)이 각각 독자적으로 실시해 왔다. 그러나 1986년부터 국내 시국상황이 불안해지고 국민적 분열과 갈등 현상이 심각해지자 6·25행사를 범국민적 행사로 개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문화공보부 등 정부 관계기관은 4차례의 조정협의 끝에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양 단체가 격년제로 6·25행사를 주관하게 하고 이를 시행하였으나 매년 주관단체가 다르다 보니 행사에 일관성이 없고 불필요한 경쟁의식이 가열되면서 행정기관의 행사지원 및 조정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990년 단독주관 건의 안 의결 강영훈 총리, 향군주관 관례화 지시

이에 향군은 1990년 3월 정기전국총회에서 6·25행사의 단독주관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

하였다. 당시 강영훈 국무총리는 향군의 건의안에 대해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6·25 40주년 행사는 참전용사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생전에 직접 참석하는 마지막 행사가 될 것"이라며 행사를 내실있게 준비하고 "앞으로 6·25행사는 매년 향군이 주관되어 실시하도록 관례화 하라"고 지시했다. 이 결정에 따라 향군은 6·25 40주년 행사를 범국민적인 행사로 준비하고 본회 안보연구소를 통해 6·25전쟁이 '자유 수호 전쟁'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정립하여 반정부 세력들의 왜곡된 주장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다.

'자유수호·국민 화합을 위한 시민대회', 서울시가 대행진, 6·25 참전용사 위로 연 등 향군이 주관한 6·25 40주년 행사는 6월25일이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시 군 구 단위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전적지 답사,

기념비, 충훈탑 참배, 안보 강연, 반공 웅변 대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곁들여 졌다.

1990년도 이후부터 향군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6·25행사를 범국민적인 행사로 추진해 왔으며 2000년 6·25 50주년 기념행사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관련부처, 관련단체의 인원을 포함시킨 기념사업단을 편성하여 전투기념 행사, 전쟁교훈 계승, 전후세대 안보교육, 조형물 건립, 참전용사 명예선양 및 복지확대 등 52개 사업과 41개 위임사업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했다.

이에 앞서 향군은 1995년부터 6·25 50주년 행사를 범정부적, 범국민적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 본부 회장 직속으로 '2000 기획위원회'를 두고 50주년 행사 기획과 준비를 해왔으며 1999년 50주년 행사 기획 추진방안을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건의

하여 5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 이후에도 향군은 매년 6·25행사를 다채롭게 추진하여 왔으며 대국민 안보제도 및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다양한 안보활동도 병행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보훈처 기능 확대, 행사 정부로 이관 향군, 공감대 형성 및 호국정신 함양 기여

그러나 국가보훈처의 기능과 조직이 확대되고 6·25가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면서 2010년 6·25전쟁 60주년 행사부터 6·25행사를 정부차원에서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도록 업무가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간 행사를 주관했던 향군은 정부주관 6·25행사에도 참전 및 친목단체, 임직원 등이 대거 참석하여 함께하고 있으며 충북,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재도 6·25행사를 향군이 주관하고 있다.

그간 6·25행사는 참전 및 제대군인으로 구성된 향군이 주축이 되어 시대상황에 맞게 개최되었다. 범국민적인 행사로 추진되어 대 국민 공감대 형성과 북한의 실체를 올바르게 알려 국민들의 호국정신을 함양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연합대비태세 유지

제1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회의, 전작권 전환 추진방향도 논의

국방부는 5월12, 13일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방부와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군의 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David Helvey)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및 시다르트 모한다스(Siddharth Mohandas)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양측 대표로 참석하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또 양측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으며 유엔사의 정전협정 지속 이행 및 관리와 남북의 '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양국은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해 거둔 상당한 진전에 주목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 Condition-based OPCON Transition Plan)을 지속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했

다. 이의 일환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능력에 대한 포괄적 공동연구와 지속 및 보완 능력 강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양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상호 합의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함에 동의하고 우리의 핵심군사능력 획득계획에 대해서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 및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협력에 관한 양측의 공약을 확인했다.

이어 양국은 "상시전투태세(Fight Tonight)"가 완비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연합훈련을 통해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방단신

장병생활여건, 군사대비태세 점검

서욱 국방부 장관이 5월11일 경기도 소재의 육군 신병교육대대 및 GOP부대를 방문, 신병교육훈련 현황을 보고받고 입영장정 방역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서욱 장관은, 신병들이 격리 생활 중 사용하는 샤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급식 제공실태 등 생활여건 전반을 점검하면서 '인권보장과 방역이 균형을 이룬 신병훈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휘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장병들의 생활관을 방문, "여러분들이 금지와 보람을 느끼며 복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뒤 "앞으로 현장에서 장병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병영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랑스러운 육군 가족상 시상식



육군은 5월1일 육군회관에서 '제1회 자랑스러운 육군 가족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백운장학재단·그래미·롯데지주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가족상을 받은 50명의 군 가족에게는 감사패와 기념품,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됐다. 아울러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4박 5일의 포상휴가 증도 주어졌다.

총 5000만 원의 상금은 백운장학재단이 후원했다. 재단은 지난해 11월 매년 5000만 원씩 10년간 자랑스러운 육군 가족상 지원을 약속했다.

육군은 "자랑스러운 육군 가

족상은 국가에 헌신하는 육군 구성원과 가족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제정됐다"며 "부대별 추천과 심의, 군인 가족 수기 공모를 거쳐 50쌍의 후보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장병들이 국가방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배우자를 든든히 지원해주신 가족 여러분의 인내 어린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육군은 군인 가족의 행복과 자부심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에 신뢰받는 우리의 국군

제72주년 육탄 10용사 기념식

육군1사단은 5월12일 사단 사령부에서 '제72주년 육탄 10용사 호국정신 기념식'을 거행하고 선배 전우들의 살신보국 정신을 기렸다.

육탄 10용사는 1949년 5월 불법 도발을 자행한 북한군에 맞서 개성 송악산 일대에서 고지 탈환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고 서부덕 이등상사와 김중해, 이희복, 윤승원, 박평서, 황금재, 양용순, 윤옥준, 오재룡, 박창근 하사는 송악산 전투 당시 박격포탄을 안고 적 기관총 진지에 뛰어들어 장렬히 산화하며 승리의 발판을 만들었다.

우리 군은 이들의 육탄정신으로 북한군 기관총 진지 10곳을 파괴하고, 고지 재탈환에 성공했다.

육군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1년 '육탄 10용사상'을 제정하고 매년 임무수행 능력이 뛰어나고, 조국 수호 의지가 강한 부사관을 선발, 포상한다.

국민 보호 해상 통합방위태세 구축

해군1함대사령부가 동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관·경과 머리를 맞댔다.

1함대는 5월12일 함대 회의실에서 동해해양경찰청, 동해어업관리단 관계관들과 협조회의를 실시하고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해상 경계작전 및 재해·재난대비 등 빈틈없는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뜻을 모았다.

특히 오징어 성어기 도래에 따라 동해의 작전환경, 해양환경 특성, 어장 형성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한 동해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공조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여름철 어장 및 어선 등의 상황평가, 합동조업보호지원 방안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어린이집 화재 대응·안전교육 실시



공군20전투비행단은 5월18일 부대 내 어린이집에서 관·군 합동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훈련은 화재·위급 상황에서 소방·의무요원들의 합동 대응능력 향상과 어린이들의 행동절차 숙달을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20전비 소방구조중대·항공의무대대 요원을 비롯해 서산소방서 해미119안전센터 대원 등 30여 명이 참가했다.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마친 후 장병들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실습, 화재 신고 요령, 대피 절차 등을 교육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혈액난 극복에 작은 보탬" 헌혈운동

해병대군수단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가적 혈액 수급난 극복에 동참하고자 4월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부대 내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장병들은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으며 군수단은 헌혈 차량 내부를 소독하고 사전 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확인된 관계자만 부대에 출입하도록 허용하는 등 장병들이 안심하고 헌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해병대 군수단은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 혈액이 필요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한 생명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6월14일~18일, 온라인 취업박람회

국방부는 6월14일부터 18일까지 전반기 제2차 전역예정장병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국방부는 박람회 기간 일자리 매칭 수요가 높은 전역예정 간부들을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상의 '전역장병 채용관'을 보다 확충하기로 했다.

진로설계에 관심이 많은 병사를 위해서는 컨설팅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준비하는 한편 일·이병 병사들에게도 박람회 참가기회를 확

대 부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전역 후 원활한 사회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29일~4월 9일 개최된 온라인 취업박람회에 이은 전반기 두 번째 행사다.

보훈단신

멕시코 한국전 참전용사회장 별세...조의

국가보훈처는 5월1일(현지 시간)에 향년 90세로 별세한 호세 비야레알 비야레알 멕시코 한국전 참전용사 회장(사진) 유족에게 조화와 조전을 보내고 애도를 전했다. 호세 비야레알 비야레알 회장은 1950년 9월부터 1952년 2월까지 미군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작년 10월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제작한 ‘평화의 사도메달’을 수여 받았다. 특히 올해 4월에 처음 출범한 ‘멕시코 한국전 참전용사회’의 초대회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조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주신 호세 비야레알 비야레알 회장님의 명복을 기원하고,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멕시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미래세대와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제대군인 취·창업 수기 공모

국가보훈처가 ‘2021 제대군인 리스타트 챌린지 수기 공모’를 진행한다.

수기 참여 대상은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가족, 제대군인을 채용한 기업 관계자, 단기 복무자이지만 보훈처에서 지원받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취업맞춤 특기병, 등급미달 경상이자, 모병장병)이다.

이번 공모의 주제는 취·창업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 제대군인의 이야기를 대상으로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하였더라도 도전 과정에서 미답이 되는 사례도 포함한다. 접수는 5월 10일부터 7월 23일까지이며, 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의 공지사항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수기를 작성하여 이메일(vnet@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1명



200만원, 국가보훈처장상), 우수(4명 각 100만원, 국가보훈처장상), 장려(8명 각 50만원) 등 총 13명을 선정해 1,000만원 규모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당선자를 제외한 응모자 전원에게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심사 결과는 8월 13일 보훈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제대군인 주간’에 시상할 예정이다.

〈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044-202-5732〉

전 국민 대상 보훈콘텐츠 공모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2021년 제25회 보훈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하는 공모전은, 조국 광복을 위해 힘쓴 독립운동, 6·25전쟁 등 호국과 민주화운동 분야뿐만 아니라 소방·경찰관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공익수호 주제가 신설됐다.

공모분야는 영상, 디자인, 문예 총 3가지로 ▲영상은 3분 이내 자유 형식(1인 방송, 영

상 일기(V-log),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동영상, ▲디자인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 웹툰(소셜 미디어 웹툰), 카드 뉴스, 포스터, ▲문예는 시(추모 헌시), 수필(보훈 수기)로 나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참여할 수 있고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로 나누어 8월31일까지 응모하며, 공모전 누리집에 참가신청서와 작품을 제출하거나 공모전 운영사무국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미국방문, 국제보훈외교

‘리멤버 유’ 명패 수여...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비 참배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전 참전비를 방문해 헌화 및 참배를 하며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렸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한미 정상회담과 연계해 19일부터 24일까지 미국을 방문, 6·25 참전 미국 참전용사에 감사하는 국제보훈외교를 펼쳤다.

먼저 5월20일(현지시간)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있는 미 해군사관학교를 찾은 황기철 보훈처장은 앤드류 필립 학교장과 환담을 통해 “71년 전 6·25전쟁 당시 미국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해군함정과 무기 지원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자유를 수호할 수 있었고, 이제는 세계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여 어려운 나라를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해군사관학교 교환교수 및 생도, 미국 해군사관학교 생도 20여명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혈맹으로 맺어진 대한민국과 미국의 소중한 인연을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나가는 일에 큰 역할을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 황기철 보훈처장은 5월21일(현지시간) 메릴랜드 주지사 관저에서 래리 호건 주지사와 부인 유미 호건 여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참전용사 샘 필더(Samuel Fielder)씨에게 ‘리멤버 유(REMEMBER YOU)’ 명패를 수여했다.

‘리멤버 유(REMEMBER

YOU)’ 명패는 유엔(UN) 참전용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제작했으며 첫 번째 수여자로 1951년부터 1954년까지 6·25전쟁 당시 해병대소속 포병으로 참전했던 샘 필더 참전용사가 선정됐다.

5월22일 황기철 처장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미디어시 소재 서재필기념관을 방문, 보훈처가 서재필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기념관 재정부 사업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으며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전 참전비도 방문해 헌화 및 참배를 하며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렸다.

국가보훈처, 복지사각지대 국가유공자 지원

특별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첫 지원 대상자 천안함 참전장병

국가보훈처는 기존 보훈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보훈수혜를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발굴하여 특별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지원심의위원회’ 첫 심의 진행 대상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천안함 참전 장병으로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장애인 활동지원 등 일반복지 신청도 한계가 있어 ‘적극행정’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아

울러 부상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투병 중으로 보훈처의 활동지원과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특별지원심의위원회는 천안함 참전장병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해 특별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보훈처는 이외에도 민간기관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국가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기존 보훈제도로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의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총 10억원 규모)과 주택도시보증공

사의 110여 가구에 대한 주택임차자금 지원(총 6억원 규모), 유한재단의 독립유공자 후손 생계비 지원(총 4.3억원 규모) 등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 자생의료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생존애국지사 한방주치의 사업’을 통해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더하고 있다.

보훈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유공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보훈가족의 든든한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시 도회장 릴레이 제언 / 향군을 말한다 ⑤

혁신을 통해 국민에 신뢰받고 활력 넘치는 향군 육성

호국보훈의 달 6월이다. 이달은 나라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한편 후손으로서 그분들이 지켜주신 대한민국을 '앞으로 든든히 지켜내겠다'는 호국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달이기도 하다.

우리 재향군인회도 대한민국 최고, 최대 안보단체로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안보의 제2보루'로서 소임을 완수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완수하고 있다.

경기도 향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4개 시 군 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19의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신뢰 받고 활력이 넘치는 경기 향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부조직 재정비로 활력이 넘치는 조직운영

모든 조직은 기초가 튼튼해야 제 기능을 올바로 발휘할 수 있다. 재향군인회는 운영비 절감 등 본회의 조직 슬림화 지침에 의거 시 군 회 별로 읍 면 동 조직을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향군은 읍 면 동 통폐합 결과를 분석하여 봉사활동 여건과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축소된 일부 시 군 회의 경우 통폐합을 재조정함으로써 향군 조직의 뿌리인 읍 면 동회 하부 조직의 활성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안양, 군포, 의왕시회 등은 예비군 지휘관을 동회장 겸직하도록 함으로써 정회원 확보 여건을 조성했고 일부 시회는 구성원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활발

하게 활동하는 인원을 청년단으로 영입함으로써 해당 지자체로부터도 좋은 평가는 물론 도회에서는 타시군 회에 전파하여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지방 보조금 확보로 안정적인 운영 여건 마련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2019년 2월 취임 당시 경기도 향군은 많은 부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조직 편성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도회 직원의 충원을 최대한 자제하고 현보직 인원으로 임무 분장하여 인건비 절감을 통한 효율적 운영으로 많은 부채를 상환했고 혼란했던 조직도 안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일부 시 군 회는 지방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의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2019년 3월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정하여 도회와 30개 시군회가 운영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향군 역시 지금 경기도청으로부터 법정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 중 최고 금액을 받고 있다.

현재 본회 차원에서 정상적인 운영비를 다시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발상의 전환을 통한 수익사업 증대 방안과 지방보조금 지속적인 확보 노력은 우리 재향군인회에 가장 절실한 과제라 생각한다.

지방 보조금 지침이 광역 단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경기도청의 경우 동일 사업을 '3년 이상



황신철
경기도 향군 회장

지원 하지 않는다'는 일몰제 조례에 의해 21년도에는 기존 예비역 나라사랑 함양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고 여성 지도자 병영 체험 사업비가 반영되었다. 이러한 일몰제는 지방보조금 편성과 집행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입김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점차 타 시 도에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대 변화 부합된 콘텐츠 개발로 위상 확립

따라서 시대 변화에 부합된 각종 아이템과 콘텐츠 개발은 대한민국 최고, 최대 안보단체 재향군인회 위상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생존이 달린 혁신적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재향군인회도 향후 생존 차원에서 시대 상황을 고려한 변화와 혁신은 꼭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우리 향군은 스스로 제반 운영 문제 등을 새롭게 진단하여 기존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혁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회원들이 '나부터 변해야 한다'는 결연한 마음을 견지하고 '시대상황에 부합된 젊고 힘 있는 재향군인회'로 거듭남으로서 국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군산시 향군, 회원자녀에 장학금 지급

5월 가정의 달 맞아 우수학생 선발 지원



전북 군산시 향군(회장 유희욱)은 5월15일 향군회관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향군회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2명을 선발 심의 후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했다.

군산시 향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회원자녀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함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우수학생을 선발 지

급 할 예정이다. 유희욱 회장은 "코로나 19로 모두 어렵고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향군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회원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군산시 향군은 6.25 참전회원 중 두 분을 선정하여 생계보조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경기도 안양시 향군(회장 서흥근)은 4월30일 최대호 안양시장과 관내 7개 민간단체와 함께 안양시청에서 열린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대회에 참석, 오염수방류 철회 요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찾기 캠페인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실물 훈장을 받지 못한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

1661-7625

로 전화주세요

유튜브 '당신의 무공훈장' 검색

영천-남원 향군, 영호남 화합행사

상호 교류확대와 우의 다지는 화합의 시간 가져



경북 영천시 향군(회장 신성철)이 5월21일 향군회관에서 전북 남원시 향군(회장 하정두)을 초청, 제23회 영·호남 화합 행사를 개최했다.

최기문 영천시장, 영천과 남원시 향군 회원 30여 명이 참석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영천과 남원향군 회원들은 꽃다발과 특산품 교환 등 서로 간의 교류 확대와 우의를 다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시는 중과 효를 큰 덕목으로 여기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효열사

가 많이 배출된 곳으로 남원시와의 화합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두 도시 간의 튼튼한 유대를 바탕으로 호남의 중심도시 남원과 영남의 중심인 영천이 서로 윈-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천시와 남원시는 20여 년 전부터 매년 한 차례씩 각 도시를 서로 방문해 회원 상견례, 특산품 교환 외에도 관광지, 산업단지 시찰 등을 진행하며 영·호남의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고 문화와 전통을 체험하는 뜻 깊은 시간을 이어오고 있다.

미 동부 향군, ‘추모의 벽’ 건립기금 전달

2년 전 1차 모금에 이어 2차 지원...“동참에 의미”



향군 미 동부지회(회장 김인철)는 4월26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소재 한국전쟁참전용사기념공원재단(이사장 존 킬러리)을 방문하여 ‘추모의 벽’ 건립기금 3500달러를 전달했다. 이번 기금전달은 향군 미동부

지회가 2년 전 1차 모금 참여에 이어 2차로 모금한 것으로 액수에 관계없이 동참한다는 데 의미를 두었다.

워싱턴 DC 한국전쟁 기념공원 내에 설치되는 ‘추모의 벽’에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3만6590명과 카투사 8100명의 이름이 새겨지고, 내년 5월에 완공된다. 김인철 회장을 비롯한 미 동부 향군회원들은 “희생한 전몰장병들을 생각하며 한미동맹을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고 말했다.

향군, 미 서부지회 인랜드분회 창설

공공외교 역량 강화 동포사회 안보구심체 역 수행

향군은 5월28일(현지시간)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한 것을 계기로 미국 내의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동포사회의 안보구심체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미 서부지회 인랜드분회(회장 박건우·사진) 창설식을 가졌다.



김진호 회장은 김재권 미 서부지회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6만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도산안창호 선생께서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기도 했던 의미있는 지역에 창설되는 인랜드분회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잘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경재 LA총영사, 김재권 미 서부지회장, 최학병 오렌지카운티 6.25참전용사회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 진안군 향군, 자원봉사센터 업무협약

유기적인 업무협조 통해 전문 봉사활동 시행

전북 진안군 향군(회장 이한기)은 5월18일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MOU) 체결하고 “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진안군민이 필요한 곳에서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은 재향군인회-자원봉사센터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협력 관계 형성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 자원봉사센터와 첫 업무협약을 맺은 진안군 향군은 군민들에게 마스크 만들어주기, 코로나 19 예방관련 집중방역활동, 흉상교체 만들기 행사 봉사, 경북청도군 자매회에 진안홍삼엑기스

보내기 등 관내·외에 행사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진안군 향군은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향군TV 유튜브 방송 '향군 안보정론' 개설

□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효과적인 대국민 안보활동 추진

□ 내용

- 유튜브 방송명 : 향군TV 내 향군 안보 정론 / 이슈체크
- 방송 주제 : 국가안보 및 국방 관련 이슈
- 영상 업로드 주기 : 주2회(매월 8회 이상)
- 방송 시작 일시 : '21. 5. 1일부
- 대상 : 향군회원 및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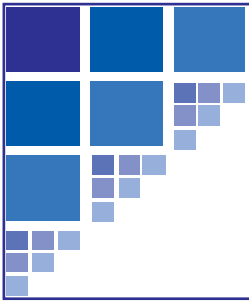
□ 출연자

- 향군에서 선발된 안보교수진

□ 방송 찾아보는 방법

- 유튜브 검색창에 '향군TV', '향군 안보정론', '이슈체크' 검색
- 주소 : YouTube.com/향군TV

향군회원들과 국민들의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각급회 소식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향군 각급회 활동

(4월21일~5월20일)

서울시 향군

서울시회 : 5월13일 향군회관에서 퇴임한 구 회장들을 초청하여 원로 간담회를 갖고 조직 활성화 방안 및 안보의식 고취방안 논의.



마포구회 : 5월14일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마포 하천정화활동 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흥제천 수변일대에서 정화활동 전개.



강서구회 : 5월7일 향군회관에서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를 초청하여, 간담회 실시하고 위문활동 펼쳐.

동대문구회 : 5월14일 관내 보훈시설 16지사 위령비 주변 정화 및 봉사활동 전개.

영등포구회 : 5월11일 반곡순국용사 위령탑 참배 및 주변 자연정화활동 실시.



강동구회 : 5월11일 서울현충원 참배 및 현화교체 봉사활동 실시.

부산시 향군



부산시회 : 5월7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보훈회관에서 6.25참전유공자를 위한 어버이날 행사를 실시하고 카네이션과 이불세트 등 기념품 전달.

대구시 향군



대구시회 : 5월14일 수성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 25명과 함께 경북 영덕군에 위치한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일대에서 나라사랑 안보·역사 체험교육 실시.



동구회 : 여성회는 4월23일 관내 봉무공원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환경살리기 캠페인'에 참여하여 봉사활동. 여성회는 4월27일 신암동 거주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 화분 가꾸기와 돌봄 봉사활동 전개.



달성군회 : 옥포읍회는 5월1일 비슬산 등산로 입구에서 환경정화활동 및 산불예방활동 전개. 여성회는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에서 안내 및 접종 질서유지를 위한 봉사활동 실시.

북구회 : 5월12일 대구시청 별관 주변 꽃보라 동산에서 무공수훈자회와 합동으로 환경정화활동 실시.

달서구회 : 강주열 회장은 4월27일부터 5월2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고려 천년의 흔 가슴에 담다'를 주제로 고려사경 전시회 개최.

인천시 향군

인천시회 : 4월29일 김형년 회장 주관 군구 회장 간담회를 통해 회무 현안을 논의하고 및 화합 단결 결의.



남동구회 : 여성회는 5월13일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새터민(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후원물품 전달.

경기도 향군



군포시회 : 여성회는 4월27일부터 6월말까지 매주 화요일 시민체육광장 1, 2체육관에서 2차 접종예방센터 운영 안내 봉사활동 실시.



평택시회 : 여성회는 4월27일 평택시 장애인 부모회 회관을 방문하여 4층 건물 2개동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활동 지원.

여주시회 : 4월27일 관내 시온의집을 방문, 코로나19 방역활동 및 텃밭 가꾸기 봉사활동 실시.

시흥시회 : 여성회는 5월14일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주관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행사에 동참하여 신천동 일대 도심공원에 카랑요에 등 초화 200본 식재.

안양시회 : 5월18일 타이어프로(금호)안양점과 향군 할인가맹점 협약을 체결하고 회원복지 증진.

수원시회 : 4월26 회원복지 증진을 위해 미소 the예쁨 치과와 향군 우대 가맹점 협약을 체결. 5월1일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센터인 정현 중보들 테니스센터에서 주차 봉사활동 실시.

강원도 향군



홍천군회 : 5월18일 월남전참전자회와 홍천강변 일원에서 자연보호활동을 실시하고 깨끗한 수질과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강변 주변 방치된 생활쓰레기 수거. 4월28일 향군회관에서 바르게살기운동 홍천

군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류 활성화 결의.

충청북도 향군

괴산군회 : 여성회는 4월29일 괴산 실내체육관에서 75세 이상 코로나 19 백신접종 봉사활동 실시. 4월23일 소수면 고마리 옥수수 농가를 방문, 농촌일손돕기 봉사. 5월12일 관내 327세대에 전달할 반찬포장 봉사활동 참가.



보은군회 : 여성회는 4월23일 참전유공자와 관내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 열무김치 70통을 담궈 어른신들에게 전달.

대전 충남 향군



보령시회 : 5월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학생들과 함께 독거노인 사랑의 나눔행사 실시. 5월10일 향군회관에서 호텔 테라마르와 신규 가맹점 협약을 체결하고 30% 회원 할인혜택 제공. 여성회는 5월2일 국가유공자 사랑 나눔 행사를 통해 관내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에게 준비한 반찬 전달.



금산군회 : 5월7일 내 고장 주수 갖기 캠페인 및 인삼 팔아주기 운동 홍보활동 실시.

예산군회 : 5월13일 BBS 예산지회, 예정회, 예산군족구협회와 함께 예산교육지원청에 취약 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 전달.

전라북도 향군

전북도회 : 5월7일 김제시 금산사 초입에 설치된 전북지역 호국영웅 백마고지 육



탄3용사 고 안영권 하사 추모비 참배.



남원시회 : 오정수 자문위원장은 4월29일 제20회 남원향토문화 시상식에서 공익봉사대상 분야 수상. 5월12일 향군회관에서 읍면 동 회장 간담회를 갖고 현안 논의.



전주시회 : 4월30일 삼성장례문화원과 향군할인가맹점 협약을 체결하고 회원 복지 증진.

고창군회 : 여성회는 4월24일 고창천 환경정화활동 실시. 5월13일 아산면 구암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네일아트 봉사.

완주군회 : 5월13일 전라북도회장과 함께 전라북도의회 의장실을 방문, 간담회를 갖고 전북 향군 활동과 안보방향에 대해 간담회 가져. 여성회는 5월20일 완주군체육문화센터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서 봉사활동 실시.

김제시회 : 5월17일 김제시 예비군 대대를 방문, 회원 획득 방안 및 현안업무 논의.

장수군회 : 여성회는 5월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봉사활동 실시.

광주 전남 향군



목포시회 : 4월22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컨벤션 센터에서 안보강연회 개최. 5월4일 복지시설 목포아동원을 방문, 위문품 전달.



순천시회 : 5월12일 승주읍 6.25참전용사기념탑공원에서 환경정화작업 실시

담양군회 : 5월11일 향군회관에서 도회 김종길 안보부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주제로 안보강좌개최.

보성군회 : 5월7일 어버이날을 맞아하여 6.25참전유공자회 보성군지회에서 주관한 전쟁영웅 가정의 달 위안행사에 참석한 참전영웅 35분에게 카네이션 달아 줘.



무안군회 : 5월8일 무안군 스포츠파크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에서 어르신 접종안내 봉사활동 실시.

경상북도 향군

영주시회 : 여성회는 5월6일 봉현면 6.25전쟁 참전용사 선양비 참배 및 주변 정화활동 실시.



안동시회 : 태화동회는 4월25일 관내 민간단체들과 함께 천리천과 육사로 주변 환경정비 사업 실시.



구미시회 : 5월13일 해평면회를 찾아 김학록 신임 동회장에게 도회장 임명장을 전수하고 간담회 개최.

청송군회 : 5월17일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와 청송읍 부곡리 소재 약수탕 일대에서 공명선거기반 조성 위한 캠페인 실시.

경남 울산 향군



경남 울산시회 : 5월17일 남해군회에서 사천, 하동 회장과 5월18일 창녕군회에서 밀양, 창녕, 김해시 회장과 도회 육군부회장,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순회 간담회 가져.

창원 의창 성산구회 : 정인규 회원이 5

월6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봉림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독거노인가구 60세대에 3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전달. 4월28일 향군회관을 찾은 창원시청 복지여성보건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업무협력 및 지원 의견 나누.

진주시회 : 4월29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잠깐 멈춤 캠페인 동참.

하동군회 : 4월27일 적량면 호국공원에서 참배 및 주변 환경정화작업 실시. 여성회는 5월4일 향군회관에서 어버이날을 맞아하여 참전유공자 및 독거노인 가정에 반찬 나눔 행사. 5월10일, 12일, 14일 하동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도우미 봉사활동.

의령군회 : 이동기 회장이 5월10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내 생계 보조 대상자와 참전 유공자 어르신 등 5가구를 방문, 카네이션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위로.

합천군회 : 여성회는 5월3일부터 10일까지 합천군 소재 부자(아버지와 자녀)가정 생일 찾아주기 봉사 활동 실시.



김해시회 : 5월10일 봄맞이 환경그린활동의 일환으로 신어산 등산로일대 정화활동 실시. 여성회는 5월6일 김해복지회관에서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도시락배달 봉사활동 전개. 5월13일 관내 '본가아숯불' 식당과 향군할인가맹점 협약을 체결하고 회원 10% 할인혜택

양산시회 : 5월13일 회원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울 패밀리 치과와 할인가맹점 협약식 가져.

고성군회 : 4월22일, 5월7일 관내 식당에서 다문화 가정(베트남)과 간담회를 겸한 오찬을 함께하고 애로사항 논의한 후 밀반찬 전달. 5월12일, 14일 코로나 19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 예방접종 지원 봉사활동 실시.

거제시회 : 5월20일 향군회관에서 면 동 회장 간담회를 갖고 회무 현안 논의 및 화합도모.

거창군회 : 5월20일 보훈회관에서 안보보훈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현안 업무 토의.

울산 남구회 : 5월6일 남구청을 방문, 서동욱 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재정자립도 향상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해 논의. 여성회 및 삼호동회는 5월10일, 달동회는 5월11일,



삼산동회는 5월12일, 대현동회는 5월13일, 신정4동회는 5월14일 코로나 19 예방캠페인 실시.

울산 동구회 : 여성회는 5월17일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가정에 반찬 나눔 봉사. 5월11일부터 13일까지 현대백화점에서 열린 여성협의회 주최 자선바자회 참석.

울산 중구회 : 여성회는 5월13일 무료급식소 북정동 수자타의 집에서 급식봉사 실시.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5월8일 회장단은 송재호 국회의원과의 만나 회 현안업무 토의.



제주시회 : 4월30일 애월읍 수산리, 5월3일 오라동 지역 저소득 가정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전개.



서귀포시회 : 서흥동회는 관내 숨바천 일대에서 풀베기 및 주변 도로 환경정화 봉사활동 실시.

안보전략논단 발간

- 1천만 향군회원에게 국내·외 안보현안에 대한 보다 더 폭넓은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안보분야 전문가를 필진으로 구성하여 2021년 3월부터 '안보전략논단'을 매월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향군홈페이지 '안보전략논단' 배너에 접속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바랍니다.

안보전략연구원

친목단체 활동

한미동맹재단, 에이브람스 사령관 환송



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과 주한미군전우회는 5월13일 힐튼 밀레니엄 호텔에서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 환송행사를 개최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전우회(KDVA)로부터 회원증을 전달받았으며 또 평택시가 수여한 명예시민증과 한미동맹친선협회가 준 한국이름 '우병수'가 적힌 족자도 선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한국에서 한국이름과 평생의 친구들, 소중한 추억을 얻었다"며 "경의롭고 유익무이한 한미동맹을 경험해 영광이었다"고 강조했다.

갑종장교전우회, 상임운영위원회의



갑종장교전우회(회장 박원재)는 4월30일 향군회관 회의실에서 상임운영위원회의를 가졌다.

정기총회 개최, 유율상 신임회장 선출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장 유율상)는 4월27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제7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유율상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총동문회, 이사회의



국군간호사관학교총동문회(회장 우승란)는 4월22일 동문회 사무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정기 이사회의를 개최했다.

향군 평생교육원, 한국특수교육재단과 업무 협약

탐정·민간조사 분야 학술연구 및 일자리 창출

향군 평생교육원(원장 황동규)이 5월18일 한국특수교육재단(회장 하금석)과 탐정·민간조사 분야의 학술연구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인탐정·민간조사·보안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학술대회 개최 등에 힘을 모은다.

평생교육원은 다음 달 중순부터 전역(예정) 간부 및 향군 회원을 대상으로 한 최고경영자과정, 중·장기 제대군인 과정 등 'PIA 탐정사 자격증 취득과정'도 연중 운영한다. 각 기수마다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하고, 전역(예정)간부에게는 할인 가 적용, 1차 시험 면제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PIA 탐정사 자격증 취득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향군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커뮤니케이션과 업무 협약 공인중개사 특별 할인과정' 개설도

아울러 평생교육원은 5월17일 주커뮤니케이션과 현역 및 전역 장병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특별 할인과

정' 개설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현역 및 전역 장병들의 취업(장업)에 도움을 주고자 연중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타 기관 대비 20%의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함은 물론 1차 시험 합격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특전도 제공된다.

문화콘텐츠사업단, 6.25 71주년 맞아 회원 장학금 지원

향군 문화콘텐츠사업단은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6·25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재향군인회 회원 대상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사회 공익 증진과 국가·참전 유공자 및 체육인의 복지와 권익 신장을 위해 기획됐으며 선정된 2명에게는 6월25일 600만원씩 총 1200만원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정회원인자 또는 그 가족 ▲국가·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초·중·고·대 체육특기자 또는 생활체육인이다.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문화콘텐츠사업단은 "이번 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해 성실히 학업에 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재향군인회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고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군 여성회, 보람재향상조와 업무협약 회원 권익 신장 노력

향군 여성회(회장 추순삼)가 5월17일 향군본부에서 보람재향상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순국선열을 위한 봉사활동과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람재향상조는 향군 여성회 회원에게 장례용품 이용 특전을 비롯해 고품격 의장대, 24시간 콜센터 무료상담, 직영 장례식장 시설 이용료 할인 등 상조 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봉사활동, 국가안보 인식 고취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향군 여성회의 안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기획 / 호국산성 기행

⑤ 보은 삼년산성

고구려 남진정책 저지, 삼국통일 전초기지로 완성된 요새

기록상 149승 1패라는 무시무시한 성과 남긴 난공불락 산성

삼년산성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화강암으로 쌓은 산성으로 신라 자비 마립간 13년(470)에 축조되었다. 5세기 한반도는 백제와 신라가 연합해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던 시대였고 삼년산성은 신라가 삼국통일의 전초기지로 쓰려고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요새였다. 삼년산성은 3년에 걸쳐 축조되었고 화강암 약 1천만 개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진흥왕은 재위 15년(554) 이곳에서 조련한 군대를 몰고 관산성 전투(현 옥천)에서 백제 성왕을 죽였다. 백제를 멸망시킨 김유신의 5만 군대가 삼년산성에서 훈련을 받았다. 무열왕은 신라와 당나라 간 동맹을 위한 국제회의를 이곳에서 열었는데 당나라에게 무력시위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후백제가 충북 일대로 확장하면서 후백제의 판도에 들어갔는데, 심지어 고려 태조 왕건도 후백제가 차지한 삼년산성을 재위 11년(928)에 빼앗으려다 크게 패한 바 있다. 그야말로 불굴의 천년요새였다.

난공불락의 요새답게 기록상 149승 1패라는 무시무시한 성과를 남겼다. 백제는 물론 수나라, 당나라도 꺾은 고구려조차 이 성 앞에선 답이 안 나왔다. 유일한 1패는 통일신라 헌덕왕 14년(822)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삼년산성에서 관군에 패해서 함락당한 것이 유일하다.

삼년산성의 둘레는 약 1.8km이고 성벽은 납작한 돌을 이용해서 한 층은 가로 쌓기를, 한 층은 세로 쌓기를 하여 튼튼하다. 성벽의 높이는 지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0m 이상으로 대단히 높다. 조선시대의 산성이 산 정상상을 두르는 형태로 대체로 낮은 편인 것과 비교했을 때 그야말로 요새라고 불려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 남쪽과 북쪽은 안팎을 모두 돌을 이용하여 쌓았다. 이처럼 성벽이 높고 크기 때문에 하중도 막대하므로,



성벽 모퉁이의 하중이 큰 부분에는 기초를 견고하게 하고자 4중 계단식으로 쌓았다.

문터는 4곳에 있으나 모두 그 형식이 다르다. 신라가 이 성을 정말로 철옹성으로 만들겠다고 작정한 티가 난다. 정문으로 사용한 서문의 경우 성벽이 안쪽으로 휘었고 계곡부의 중앙에서 북쪽으로 약간 어긋난 지점의 경사면에 있어 성 밖에서 문의 위치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음은 물론 남북으로 치성 2개가 배치되어 공격하는 적을 쉽게 반격할 수 있다.

북문은 문 밖에 이중으로 성벽을 쌓아 벽을 돌아 올라서야 문으로 다가갈 수 있게 설계했고 동문은 들어오는 길을 'ㄷ'자로 만들어 들어오기 힘들게 만들었다. 남문은 치성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러한 형태인 성문을 현문식 또는 현문식 구조라고 하는데, 신라의 성문의 전형적인 구조이다.

삼년산성은 5세기 후반 신라의 성 쌓는



기술을 대표하는 산성이며 우리나라에서 돌을 이용하여 쌓은 대표적인 산성으로 평가 받는다.

삼국사기는 성을 쌓는 데 3년이 걸렸기 때문에 삼년산성이라 부른다고 설명하지만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오향산성,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읍지에는 오정산성으로 기록되었다. 삼년산성은 1973년 5월 25일 사적 제235호로 지정되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21년 4월 23일 ~ 21년 5월 23일)

- ▶ 정기 기부 단위: 만원(기부누계)
- 前 향군홍보실장 이정호 1만원 (280만원)
- 권율부대 강모아 1만원 (70만원)
- 권율부대 김홍수 1만원 (9만원)
- 향군장학재단 정세관 1만원 (3만원)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 417-5887)

♣ 본 내용은 인터넷 "향군장학재단" 홈페이지(kvast.or.kr)에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기부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금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전우여! 어디에 ...

◆한상철씨가 1978년부터 1981년까지 방공포 111대대 행정병으로 군 생활을 같이한 작전과 김석진(인하공전 재학 중 입대), 통신과 서기원(원주), 인사과 선임하사 한환교 중사, 이발병 김무중, 황장익, 수송부 노영찬(정읍) 등 전우들을 찾고 있습니다. (한상철 010-3551-7691)

◆김민석씨가 1988년부터 1990년 8사단 16연대 1대대 1중대에서 같이 군복무를 했던 전우를 찾습니다. (김민석 010-3730-9473)

◆이희웅씨가 1980년부터 1983년 파주27기갑연단 16전차 분부중대 수송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이재모, 윤득환, 이일남, 고준호, 정연복, 곽경수, 허동석, 장한웅 하사, 전재철의 무병 등 전우를 찾고 있습니다. (이희웅 010-3624-6678)

◆최쌍엽씨가 1990년 연천 5사단 27연대4대대에서 같이 군 생활을 했던 동기 조종훈 김옥찬 안문석씨를 찾습니다. (최쌍엽 010-3771-8377)

향군 할인가맹점

▲ **향군 할인가맹점 협약 업소현황**
전국 1,157개 업소

▲ **이용방법 :**
사용 시 향군회원증, 여성회원증, 장성회원증 제시
* 숙박시설, 골프장 등 이용시 사전 예약

▲ **향군 우대가맹점 찾기**
- 향군 홈페이지 (<http://korva.or.kr>) 향군 할인가맹점 검색
* 이용 희망지역, 업종 및 상호명으로 검색
- 사용 예정시 해당 지역 시·도/시·군·구 재향군인회로 전화 문의

▲ 신규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면목서울치과**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429, 3층)

02-493-2879 : 비급여 10%

● **미래안과의원**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353, C동 3층) 02-2684-3005 : 비급여 10%

● **서울패미리치과**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129-1, 양산세무소빌딩 6층) : 055-785-0606 임플란트 개당 69만원 2+1

식당/음료

● **본가야숯불** (경남 김해시 가야의길 96) 055-324-3388 : 10%

기타

● **삼성장례문화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37) 063-247-1003 : 분향소 60% 할인 등

● **호텔테라마르** (충남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길 57) 041-936-2070 : 숙박 30% 등

▲ 우수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부산시 서구 감천로 262) 051-990-6114 : 10~20%

● **대구의료원** (대구시 서구 평리로 157) 053-560-7575 : 10%

● **보니파시오 요양병원**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43-5) 042-717-1000 : 20%

● **성심치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3) 031-747-4340 : 10%

● **연세안과의원** (인천시 계양구 계산사로65번길 17) 032-543-3471 : 정상가 30%

● **통영서울병원** (경남 통영시 남해안대로 857) 055-644-1777 : 10~15%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892) 1577-5800 : 비급여 10%, 제증명 50%

숙박/리조트

● **라마다문경새재호텔** (경북 문경시·읍 새재2길 32-3) 054-504-7077 : 객실 30%

● **메종글래드 제주** (제주시 노연로 80) 010-4692-1219 : 20~30%

● **신안비치호텔** (전남 목포시 해안로 2) 061-243-

3399 : 객실 30%

●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 02-221-2000 : 정가의 40~50% (디럭스 객실, 조식)

● **그린라군 호텔 인 설악**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 141) 010-6728-2030 : 특가

기타

● **두산익스프레스** (대전시 서구 월평중로3번길 95) 042-488-0424 : 이사비용 10%

● **진주 릴리플라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62) 055-752-7030 : 10%

● **중앙스튜디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34) 02-844-1177 : 20%

● **엠플러스웨딩** (군인공제회관 내)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 군인공제회관 3,4층) 02-2190-2500 / 2222 : 15%

● **코바블라워**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548-1) 02-3679-7070 : 근조 3단 화환 78,000원 / 축하 3단 화환 59,000원

● **거봉 백병원** (경남 거제시 계룡로 5길 14) 055-733-0000, 비급여부분 10%



건강정보

‘상과염’ 반복적 손 사용으로 흔히 발생

스트레칭과 적절한 근력 운동 매우 중요



발생원인

질병 명에 나와 있듯이 테니스나 골프, 공 던지기 등의 스포츠에서 과도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으로 힘줄의 인장력을 초과하는 힘이 지속적으로 가해졌을 경우 힘줄의 부착부에서 미세 손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미세 손상이 누적되면서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며 건병증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단순히 스포츠뿐만 아니라 손을 많이 사용하는 육체노동자, 빨래, 청소, 요리와 같은 가사노동, 타이핑 등과 같이 직업적인 또는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반복적으로 손을 사용하는 경우 흔히 발생하게 된다.

주요증상

이완된 건에 힘이 가해지도록 손의 사용을 했을 경우 통증이 심해지며 휴식 시에 통증이 완화되는 임상양상을 보인다. 대부분 환자에서 처음에 미약한 통증이 생기며 병이 진행될수록 통증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지만 갑작스러운 외상으로 인해 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 휴식 시에도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며 수면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이 심해지기도 한다. 보통 외관상으로는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지만 병이 진행되며 상과 부위의 뼈가 돌출되어 보이거나 주위에 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예방법 및 치료방법

상과염의 예방과 치료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과 적절한 근력 운동이다. 특히 상과염을 유발할 수 있는 손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나 활동을 하기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힘줄의 인장력이 늘어가게 되어 운동 중 상과염의 원인이 되는 힘줄의 미세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스트레칭은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손목을 굴곡시키며 신전건을 늘려주거나 손목을 신전시켜 굴곡건을 늘려주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 전완근의 근력 운동 또한 예방과 치료에서 매우 중요하다.

손의 무리한 사용에도 전완근의 근력이 충분하다면 상과의 건 부착부에 발생하는 손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상과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운동이나 직업을 가진 경우 평상시 전완근의 근력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다.

상과염은 유병율이 상당히 높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상과염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초기에는 적절한 휴식과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 소염제의 복용, 파스나 젤과 같은 국소 진통제의 사용도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자가혈청치료술(PRP)이 상과염에 신의료기술로 승인을 받아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상의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통증이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소수의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제의 책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삶의 지침서 ‘나는 대한민국 강사다’

이영하 공군부회장 비롯한 백강포럼 30인 경륜 한데 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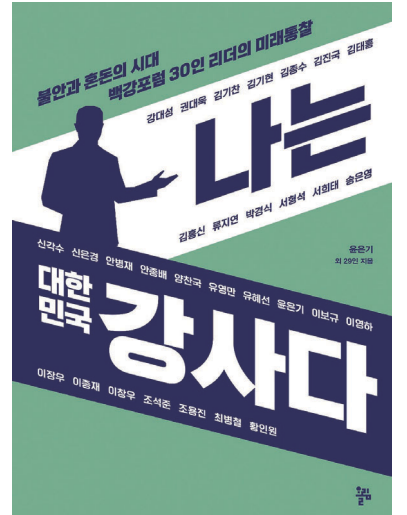
백강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이영하 공군 부회장(예 공군 중장)이 포럼 리더 30인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불안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저서 ‘나는 대한민국 강사다’를 공동 출간했다.

문학, 예술, 심리, 건강, 경영, 리더십, 소통, 공간, 외교 등 전통적인 주제부터 이커머스, 기후변화, FTA, 4차 산업혁명, 미래 예측과 대비에 이르기까지 우리네 삶의 거의 모든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특히 학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공직 등 자신의 분야

에서 일가를 이룬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검증된 명강사들이 의기투합하여 오랜 시간 고민하고 성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일한 군 출신으로 백강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이영하 공군 부회장은 이 책에서 “불통의 시대,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대중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다.

사회공헌과 지식공유를 목적으로 2013년 창설된 백강포럼에 참여해 온 리더 30인의 경륜을 한자리에 모았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지식



과 정보, 지혜와 통찰... 이 책은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



나라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대한민국 최고·최대의 안보단체
재향군인회!!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향군이 되겠습니다.



향군 정회원이 되어주세요

- 회원자격 : 군번있는 자 누구나
- 평생회비

병사	부사관·위관	영관	장군
1만원	2만원	5만원	10만원

- 정회원 특전 : 향군편의시설, 향군가맹점 할인 혜택
- 문의 : 02)417-5412, 모바일 가입 가능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 (주)중앙고속, 향우산업(주), 향우종합관리(주), 향우실업(주), (주)통일전망대
업체 | (주)중주요관광선, 종합사업본부, 향군타워사업본부, 고속도로휴게소사업본부